

유럽 재정위기와 유로존 거버넌스의 변화 전망

■ 연구책임자

부연구위원 강유덕

과제구분	정책
구분 선정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럽 재정위기는 우리나라와 교역, 투자, 금융부문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EU 회원국들의 위기이므로, 이에 대한 우리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이 필요함. -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함께, 이들 국가들의 대응정책들을 파악하고, 향후추이를 전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 EU 정책 및 거시 경제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연구라 할 수 있음.

■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

□ 2010년 초 그리스 위기사태를 시작으로 촉발된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그동안 유로존이 가져온 구조적 취약성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됨.

- 취약한 경제구조 속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는 PIGS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상호연계되어 있는 부채망을 통해 유로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바 있음.
-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구조가 취약한 남유럽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하되면서, 그리스('10 5월), 아일랜드('10 11월), 포르투갈('11 14월)이 연속적으로 EU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음.
- 유로지역의 재정위기는 1999년 출범 이후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달러화에 대응하는 제2의 국제통화로 자리잡은 유로화의 위상에 큰 손상을 입혔으며, 일각에서는 유로화 존속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하는 등 견해가 엇갈리고 있음.

□ 재정위기의 확산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EU는 기존의 경제 거버넌스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들이 추진 중임.

- EU 차원의 대표적인 재정안정방안으로는 2010년 5월에 도입이 결정된 유럽안정기금(EFSF)을 들 수 있음.

· 4,400억 유로규모인 EFSF은 재정위기의 발생 시 특별목적법인 (SPV)이 유로지역 회원국이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민간채권 시장에 유통시켜 재원을 마련

- 2010년부터 EU는 미시건전성을 감독하는 유럽금융감독시스템 (ESFS)과 거시건전성을 감독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 (ESRB)를 설립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,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금융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.

- 기존의 성장·안정협약(SGP)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강화된 SGP의 시행을 추진 중이며 거시불균형 방지와 해소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.

· EU는 2010년 재정위기 이후 회원국의 거시경제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 회원국 재정의 상호 감독(peer review)를 위한 유럽학기(European Semester)를 도입하고 SGP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조치를 추진해 오고 있음.

- EU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수준 외에도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회원국 간의 거시경제적 불균형을 조기에 포착, 교정하기 위해 좌다불균형처리절차의 도입을 모색하는 등 개혁조치를 추진 중이나, 불균형의 기준 등에 대한 지표나 교정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임.

□ 2010년의 재정위기 이후 EU의 경제 거버넌스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, 변화의 원인과 방향,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.

- 남유럽發 재정위기는 재정불균형과 대외교역수지의 불균형, 회원국의 경제운영정책의 미숙과 관련된 유로지역 근본적인 취약성을 대두시켰으며, 이로 인해 개혁의 전환점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음.
- EU는 우리나라와 통상부분 뿐만 아니라 금융부분에서도 깊은 연관성이 있어, EU 경제 거버넌스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.

■ 연구 목적

- 본 연구는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EU의 경제 거버넌스 개혁을 평가하고, 개혁과정에서의 논의와 정책적 시도, 각국의 입장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함.
 - 2010년의 유럽재정위기는 유럽통합의 근본 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큰 전환기의 사건으로 볼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2010-2011년은 유럽경제통합과 거시경제정책의 조율 등에 대한 대규모의 개혁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음.
 - 본 연구는 통화공동체로서 유로지역이 추진해온 개혁을 진단하고, 이 과정에서 독일, 프랑스를 비롯한 주도국과 재정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들간의 이견, 정책적 조율을 위한 노력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함.
- 한편, 통합초기부터 각국간의 경제적 차이와 거시경제정책의 선호도 차이 등이 대두되어 온 바, 국가별로 상이한 경제상황의 원인을 유럽통합의 틀 속에서 분석해 보고자 함.
 - 단일시장의 완성과 유로화의 도입이후 각국의 거시경제적 환경이 수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경쟁력 격차의 증가 등 경제의 근간에 대한 상이성이 증가해 왔으며, 유럽 재정위기는 일정 부분 이러한 상이성의 확대에 기인함.
 - 본 연구는 독일 등 소위 북유럽권 으로 분류되는 경제운영 모범국가 와 재

정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들간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, 이들 국가들의 거시 경제 운영현황을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, 2010년 유로지역이 겪고 있는 재정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함.

□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유로지역의 해체될 것임을 예견하는 바,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근거를 분석해 보고, 앞으로 유로지역이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과 조치들을 조망해 보고자 함.

-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유로지역의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득세한 바 있는데,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근거와 반대의 의견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함.
- 남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 국가들이 누렸던 편익을 분석함으로써, 유로지역 해체시의 비용을 비교해 보고자 함.

■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

구 분	선행연구와의 차별성			
	연구목적	연구방법	주요연구내용	
주요선행연구	1	-과제명: 유로화출범의 파급효과 및 대EU통상환경의 변화 -연구자(년도):이종화 외(1998) -연구목적: 유로화 출범으로 초래될 파급효과 및 한국에 미칠 영향 전망	-문헌연구	-유로화 출범이 참가국 역내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물 및 금융 부문으로 나누어 고찰한 후 국제 금융에 미치는 영향 도출 -유로화권역의 예상가능한 거시정책 조합을 전망
	2	-과제명: Implications of EMU for Global Macroeconomic and Financial Stability -연구자(년도): Bjorn Dohring 외(2008) -연구목적: EMU 체제가 세계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	-문헌 연구, 통계분석	-EMU가 유로존의 이자율, 인플레이 및 경제성장률의 안정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외선진국 경제의 거시경제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쳤으며, 국제위험분담을 완화시키는데에도 일조함.

■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

구 분	선행연구와의 차별성		
	연구목적	연구방법	주요연구내용
3	-과제명: 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-연구자(년도):김홍중 외(2010) -연구목적: 유로화 출범 10년을 평가하고 향후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	-문헌연구, 통계분석	-유로화는 출범 10년 동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며, 회원국들의 거시경제 안정과 역내교역 및 투자 증대에 큰 기여를 함. -일부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는 회원국의 내부적 원인과 통화공동체의 특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나타났음.

본 연구	-기존의 연구는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원인을 국가별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거나, 통화공동체로서 유로지역의 구조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술한 바 있음. -본 연구는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이후,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경제 거버넌스의 개혁 방향을 진단하고, 앞으로 유로지역이 통화공동체로서 존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과 조치들을 분석하고자 함. -또한 남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, 유로지역 국가들이 누렸던 편익(2009-2011년 기간)에 대해 점검하고자 함.	-문헌 연구, 통계, 실증분석 및 전문가 면담	-유로지역 재정위기 이후 나타난 경제거버넌스 개혁 조치 분석 -통화공동체의 발전 방향 분석 -재정위기 기간 중 유로지역 국가들의 유로화 사용 편익 분석
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■ 주요 연구내용

-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 (EFSM), 성장안정협약 (SGP) 강화 등 EU 차원의 대응책 분석
- 경제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와 주요회원국의 입장 분석

- 재정위기를 겪은 바 있는 남유럽국가 (PIGS)와 모범국가로 부상한 독일, 정치적 입지가 강한 프랑스, 영국 등 EU의 경제구도 변화 분석
- 재정위기 이후 주요국의 재정건전화 정책 연구
- 금융위기 기간 중 EU 주요 금융지표들의 변동성 분석
- EU의 금융감독 강화 방안 연구
-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도출

■ 목차(가안)

1. 서론

2. 통화 공동체 형성에 대한 이론적 점검

- 가. 통화 공동체 형성과정에서의 논의 점검(현재 입장에서의 분석적 재조명)
- 나. 유로존과 최적통화지대(1990~2010년 사이의 지표개발)
- 다. 통화 공동체에 대한 찬반론 점검(경제학계, 일반여론)

3. 유로존 재정위기의 근본적 원인

- 가. 유로존 형성과정에서의 문제점(유로존에 부합하기 위한 각국의 개혁조치 점검)
- 나. 재정위기에 대한 진단(정량적인 재정위기의 원인분석)
- 다.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 진단(편익분석, 유로존 내의 Two model-북유럽, 남유럽 논의)

4. 유로존의 경제거버넌스 개혁

- 가. 재정준칙에 대한 개혁
- 나.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한 개혁
- 다. 거시경제불균형에 대한 개혁조치

라. 경제거버넌스 개혁에 관한 각국의 입장(독일, 남유럽 국가들의 입장)

5. 국가별 정책대응 및 향후과제

가. 재정위기 이후 각국의 구조개혁

나. 통화공동체 유지를 위한 국가별 과제

6. EU 경제거버넌스에 대한 향후 전망

가. 경제거버넌스 개혁조치(또는 계획)에 대한 평가

나. 향후 EU 및 유로존의 변화전망

다. 개별책임 강화와 재정통합 논의

7. 소결(정책적 시사점)

■ 연구추진방법

□ 유로지역의 재정위기의 진행과정에 대한 진단

- 문헌연구와 통계분석을 통해 재정위기 기간 중 국가별 거시지표의 변화와 개혁조치 분석

- 기존의 국가채무위기와 유로지역의 재정위기에 대한 비교분석

□ 재정위기 이후 2010-2011년 기간 동안의 경제거버넌스 개혁 조치 분석

- 문헌연구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진행

□ 세부추진일정

- 연추심: 2012년 3월

- 연중심: 2012년 7월

- 연결심: 2012년 10월

- 전문가 초청 간담회: 3월, 6월, 9월 3차례 간담회 추진

- 현지조사 출장: 5월 경

▣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

◦ 정책수요처(정부, 기관 등)

기획재정부, 외교통상부

◦ 국정과제 관련성

NO	국정지표		국정과제	
	코드	명	코드	명
1	GOVI002	활기찬 시장경제	GOVI521	성장의 밑바탕인 경제안정을 이루겠습니다
2	GOVI005	성숙한 세계국가	GOVI587	FTA 체결 대상국가를 다변화하겠습니다

▣ 기대효과

◦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

-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통화공동체의 형성 및 운영과정에 대한 실증적 토대를 제공

- EU 경제거버넌스의 개혁과정과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,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유럽관련 지역학 연구에 기여

◦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

- EU 경제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변화 방향 파악

- 대외 리스크 요인 분석을 통한 국내 금융권의 위기관리 능력제고

- 국내 금융정책에 있어서의 시사점 도출

◦ 기타 기대효과

▣ 연구기간

연구년차	(1/1년차)	연구기간	10	개월	시작일	2012.2.1	종료일	2012.11.30
------	---------	------	----	----	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-----